

“활동가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 살아온다는 것

- 김형렬 회원을 만나다

윤박 선전위원

‘회원 이어말하기’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을 직접 만나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연구소 활동에 대한 경험과 기대를 나누는 코너입니다. 이번 5월호 <일터>가 만난 주인공은 지난 호에서 안재범회원이 다음 이어말하기 회원으로 제안한 김형렬 회원입니다.

세 번째 ‘회원 이어말하기’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원 김형렬입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어말하기’에 지명될 줄은 몰랐는데, 좀 놀랍네요.

어떤 일을 하시나요? 혹여 김형렬 회원을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구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노동자 김형렬’이 궁금합니다.

학생들 강의도 하고, 연구도 해요. 환자 진

료도 보고요. 의과대학 강의는 한 학기 내내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계속 강의하는 블록 강의 방식이고, 보건대학원 강의도 하는데 주로 야간에 강의합니다. 월요일에는 대부분 발표나 강의를 있어서 주말에도 다음 주를 준비해야 하죠. 주말에 아무 것도 안 하고 지내본 게 정말 몇 번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주말에 일하고 있을 때는 ‘왜 이렇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수는 좀 한가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교수 중에 여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연구비도 따 와야 하고, 학생들 인건비도 챙겨줘야 하고, 논문도 많이 써야 하고, 교육도 해야 하고, 진료도 해야 하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많고, 그렇기에 점점 경쟁적인 분위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교수로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니까 학교 밖에서 보는 업무도 많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거의 일주일 내내 새벽에 나가서 출장 검진하고, 소규모 사업장도 많이 다녔어요. 전공의 때는 더 많이 했고, 전문의 되고 나서도 사업장에 가는 일이 많습니다.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를 하거든요.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환경의학과나 직업환경센터 이런 데서 위탁 업무를 하고,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사들이 보건관리를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는 거죠. 사업장에 가서 건강 상담도 하고 작업환경관리도 합니다. 우리 병원이 위탁운영하는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손이 모자라면 일주일에 하루, 이틀 지원 나가는 일도 합니다.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예전 얘기하려니까 좀 민망하네요. 제가 고3이던 1989년이 전교조가 조직된 해예요. 당시 학생회 활동을 했는데, 우리 학교 선생님 가운데 열 분 좀 넘게 해직되시고, 관련 집회도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운동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1991년 의대에 들어가서 학생운동을 했고, 1994년 무렵엔 민중의료연합에서 활동했어요. 그때 파업 진료, 노동자건강지원단 활동 등을 했어요. 이런 운동들이 이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설립과 활동으로 이어졌고요. 졸업 후 공중보건의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직업환경의학으로 전공을 정했습니다. 그 당시엔 직환의가 별로 없다 보니 해 보자 싶더라

고요. 전공의 1년 차에는 일이 너무 많아 활동을 거의 못 했고, 2년 차 무렵부터 연구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노동안전보건 활동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활동해 오셨는데, 스스로를 ‘활동가’라고 규정하기를 꺼리신다고요?

솔직히 말하면, 스스로 활동가라고 말하기에는 좀... 활동가가 ‘되고 싶은’ 사람이지만, 정체성이 활동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는 사람이었어요. 운동과 삶이 일치되지 않은 사람, 운동과 일을 기능적으로 분리해서 활동의 시간을 확보하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전업 활동가가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 계속 있었거든요. 연구소 초창기에 제가 주도적으로 운동을 이끌었다는 생각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연구소 활동에 완전히 몰입하던 동지들을 생각하면 저를 활동가라고 규정하는 것이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그럼, 정체성에 변화가 있었던 계기가 있었나요?

2010년 무렵 연구소 소장을 맡으면서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연구소 소장이라는 건 엄청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소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뭔가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제가 소장을 맡아야 한다고 권하니까, ‘다른 방식으로 나를 고민해 볼 기회가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소장을 하면서 ‘이런 방식의 활동가도 있는 거지, 이렇게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하는 활동이나 연구 같은 것들을 통합시키고, 의미



▲ 2026.1.28. '아간노동 규제방안 촉구 국회토론회'에서 '아간노동 건강영향과 규제 필요성'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김형렬 회원. 사진: 한노보연

부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후로 한 10여 년은 연구소가 저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었던 것 같아요. 어디 교수니, 직환이니 하는 것보다 연구소 회원이라는 것이 저를 규정하는 제일 큰 정체성이었죠.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활동가로 규정되든 아니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활동들을 잘 하려고 합니다. 저의 활동에 운동의 의미를 담아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합니다.

연구소가 젠더 문제, 기후 위기 등으로 노동안전보건 의제를 넓혀 왔잖아요.

주제가 확장된다는 건 조직이 건강하고 살아 있다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처음 노동안전보건운동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게 기능적이고 전문적인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았

어요.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는 노동 현장에서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영역이고 가장 계급적인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운동을 부문 운동이 아닌 전체운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젠더 문제는 노동안전보건운동에서 제일 취약하고 덜 건드려진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건드리는 순간 가장 어려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고, 해결에 다가서는 운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에 우리가 노동안전보건운동을 전체운동의 시각에서 바라봤던 것과 결이 닿아 있는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제가 빠르게 확장되면서 함께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여러 영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연구소가 너무 많은 주제를 다루는 것 아니냐?' 하는 걸로 고민하

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오히려 ‘주제 확장을 해나가고 있구나, 운동의 주제와 주제를 계속 발굴해 내고 있구나’라고 뿌듯해 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활동하시면서 가장 깊은 고민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가만히 있기도 어렵고... 뭘 주장하고 있어도 그것만으로 다 해결될까 싶어서, 실력을 좀 키워서, 조그만 변화라도 만들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고민이 깊어지다가, 다른 한 편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고민이 이어집니다. 멀리 보고 활동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현장 활동기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당장멈춰팀’ 활동, 작업중지권 관련 활동이 현장에서 의미 있는 확산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아픈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노동안전보건 활동이 다가야 할 현상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단위 사업장을 넘어서는 활동이 더 많아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보면 조합원들의 산재 문제에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사고나 질병이 생기지 않는 현장을 만드는 일, 아픈 노동자가 건강하게 다시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일에도 더 시간을 많이 썼으면 합니다. 산재 승인을 둘러싼 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비중이 좀 줄었으면 하는 겁니다. 산재 승인을 받는 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 2023.10.23. 한노보연 20주년 행사장에서 오랜 동지인 이해은 회원과 함께 한 김형렬 회원. 사진 : 한노보연

야 하잖아요. 전 단계인 예방, 그리고 건강한 현장 복귀에 좀 더 방점이 찍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김형렬 회원께서 30년 가까이 한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한자리에 있지 않았고요. 지금도 조금 더 잘 해 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벌써 연구소에서 제일 오래 있었던 몇 사람 중 한 사람이 되어서요. 실력이나 활동력은 여전히 막내 같은데, 좀 부끄럽네요. 제가 마라톤을 하는데요. ‘한노보연 달리기 모임’ 회원이기도 합니다. 마라톤을 잘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좋아하거나 잘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참는 걸 잘해요. 힘든 거 잘 참고, 하던 거 잘 하려고 하고... 그런 점이 마라톤을 시작하고, 계속하고 있는 이유 같습니다. 연구소 활동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